

광주 AI산업 탄력 받는다

AI 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

국토부, 광주에 공동 용역 제안 2조원대 사업 ‘AI 생태계’ 활력

광주 미래먹거리 산업의 양대 축의 하나인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광주시에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하자고 제안해 사실상 광주가 자율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광주시에 ‘AI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기획·기본구상·기획 연구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하자는 공문을 보내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국토부와 오는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AI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사전 기획 연구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용역 비용은 총 2억원 규모로 광주시가 1억 5000만원 국비 5000만원이다. 인공지능 모빌리티 사업은 AI 기반 자율주행·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실제 도시에서 실증하고 상용화하는 1조 5000억원 규모 프로젝트다.

광주시와 국토부는 이 사업을 국가시범도시에 구현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0억원(국비10억원, 시비10억원) 규모의 기본구상 용역을 진행한다.

국토부의 공동용역을 제안한 배경에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공약인 AI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동일 사업을 놓고 경쟁 중인 충남, 대구, 경북 등 4개 시도 보다 광주시의 경쟁력 우위를 인정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시는 광주시 광산구 일원 빛그린산단과 미래차 국가산단을 사업 부지로 정하고 미래자동차를 비롯한 이동수단 등 새제품의 기술을 실증할 계획이다.

용역결과 광주시의 적합성이 뛰어나다는 평가

가 나온다면 국토부는 1조 5000억원을 들여 광주에 자율주행차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형 도로와 교통 인프라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모빌리티를 실제 광주도심에서 주행하고 시험하는 테스트베드 도시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기본구상 용역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예타면제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국가시범도시를 착공하고 2030년 연말 준공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더해 광주시는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총 5억원의 시비를 들여 ‘피지컬 AI기반 미래차 산업혁신 클러스터 조성 기획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AI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에 선정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의 미래차 클러스터 산업이 바로 연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국토부의 인프라 사업과 산업부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뗄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 사업은 5000억원 규모로 세계 최대 AI융합 미래 모빌리티 연구개발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엔드 투 엔드’(E2E·입력에서 출력까지 하나의 시스템에 전 과정을 처리하는 방식)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산업 혁신을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광주는 국내 유일의 완성차 생산기지 2곳(기아, 글로벌모터스)으로 연 72만대 생산능력을 보유한 우리나라 제2의 자동차 생산도시라는 점에서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에 강점이 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광주시 담당자는 “14일 활동 종료로 앞둔 국정기획위원회의 국정과제 확정 대국민보고회 전까지 유동적이지만, 국토부에서 관련 용역을 공동제안해 왔다”면서 “빛그린·미래차 국가산단 일원에 총 2조원에 달하는 AI·모빌리티 기술융합 실증 인프라를 구축한 스마트 미래도시 관련 사업이 광주에서 실현되면 광주 AI생태계에도 활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박우량·최강욱 등 광복절 특사·복권

정부, 83만6687명 특별사면

윤미향·조희연·이용구 등 포함 “국민화합·경제활성화에 중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군수직을 상실한 박우량 신안군수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형 생활을 해온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특별사면됐다. <관련기사 3면>

11일 정부는 “광복절을 앞두고 조 전 대표를 포함한 83만6687명에 대해 특별사면(15일자)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일반 형사범 1922명(국방부 소관 2명 포함), 특별 배려 수형자 10명, 노역장 유치자 24명, 정치인·주요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42명, 노조원·노점상 농민 184명, 운전 관련 직업 종사자 440명 등이다.

이번 사면에는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형이 확정됐던 여권 인사들이 대거 이

름을 올렸다.

조 전 대표의 아내인 정경심 전 중앙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등 범여권 인사들도 대거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또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부당하게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최종 확정된 군수직을 상실한 박우량 군수도 형선고실효 및 복권됐다.

조 전 대표 부부를 비롯해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 민주당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이 모두 사면 대상이 됐다.

조 전 대표는 작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뒤 수형 생활을 하고 있다.

최강욱 전 의원은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윤미향 전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받았다.

윤건영 의원은 허위 인턴 등록 혐의, 백원우 전 비서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감찰 무마 혐의, 김은경 전 장관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각각 유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최근 직접 사면·복권을 요청하고 나선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뇌물 공여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삼성전자 전직 경영진도 대거 포함됐다.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대외협력담당 전무 등이 복권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민 화합 기회를 마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주권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을 통해 사회적 갈등이 봉합되고 국민 대통합이 이뤄질지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지붕 위 작업 무법지대…위태로운 노동자 ▶6면

국토교통·남도 체형 로드 ‘진도’ ▶19면

타이거즈 전망대 - 마운드 변화 분위기 쇄신 ▶22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김전희 ‘운명의 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전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자문시정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여사는 2009~2012년 발생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통정거래(매수·매도할 사람이 사전에 가격을 정해놓고 일정시간 서로 주식을 매매하는 것)를 포함해 3700여차례의 매매 주문으로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단순 방조자가 아닌 시세조종 공모자라고 판단했다.



오늘 오전부터 영장심사
빠르면 오후 구속 여부 결정
전 대통령 부부 헌정 사상 처음
동시에 구속 될까 ‘주목’

특검팀은 김 여사의 구속영장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쟁긴 부당이익을 8억1000만원으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으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명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고,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모친 최은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

문에 적시했다. 김 여사는 2022년 재·보궐선거와 작년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한 혐의, 2022년 4~8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을 부정하게 청탁받은 혐의도 있다.

영장심사를 마치면 당일 늦은 오후나 이튿날 새벽에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 여사가 구속될 경우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상황이 빚어진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연합뉴스

The new EQE SUV

누구도 예상 못한 아우라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6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광주 수원 전시장 062)716-5001 & 광주 인중 중고차 전시장 062)945-0007 & 수원 서비스센터 사고수리 062)942-7200 / 일반전화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65(도전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EQE 350 4M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도상: 4.3,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445, 공차중량(kg) : 2540, 배터리 용량(kWh) : 90.56
· EQE 500 4M SUV 복합 에너지 소비효율(전기:km/kWh) : 4.1(도상: 4.2, 고속도로: 3.9) 1회 충전거리(km) : 449, 공차중량(kg) : 2590, 배터리 용량(kWh) : 96.5
※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 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상기 제품이미지는 국내 사양과 다를 수 있습니다.